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본 노부모부양과 재산상속의식: 한국과 미국의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Caregiving and Inheritance patterns:
Korea vs. U.S.A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신 화 용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부교수 조 병 은
오레곤주립대학교 인간발달 및 가족학과
교 수 A.J. Walker

Dept. of Human Dev. & Family Studies, Duksung Women's University
Asso Prof. : Hwa Yong Shi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sso Prof. : Byung Eun Cho
Dept. of Human Dev. & Family Sciences, Oregon State University
Prof. : A.J. Walker

〈목 차〉

- | | |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resent study compares motives for caregiving, actual caregiving provision, care expectation from children in old age, and the connections between caregiving and inheritance distribution patterns as perceived by caregiving daughters/daughters-in-law and their care-receiving mothers/mothers-in-law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in caregiving motives between

* 본 논문은 학술진흥재단의 1995년도 자유공모과제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Korean and American children while American mothers/mothers-in-law perceived significantly lower obligatory caregiving motives than their Korean counterparts. Also, both Korean children and their mothers/mothers-in-law reported higher level of care provision than their counterparts. The level of caregiving expectation from their children in old age among Korean elder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American elders while no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Korean and American children. Finally, both Korean children and their mothers/mothers-in-law were more likely to endorse distributing larger shares of inheritance to the child who cared for his/her mothers/mothers-in-law than American counterparts. On the other hand, American subjects were more likely to accept the notion of equal distribution of inheritance. Overall, this cross-cultural study showed the cultural differences in caregiving and inheritance patterns between Korean and American subjects exhibiting salient difference among the older generation.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모-자녀 관계는 의무감과 애정을 바탕으로 한 상호적인 관계이며 일생동안 변화하면서 지속된다.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는 자녀를 일방적으로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자녀가 독립한 후 부모가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의무감은 줄어들며 부모와 자녀는 애정적이고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부모가 노년에 들어 병약해지고 의존적일 때 자녀가 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관계로 부모-자녀 관계는 변화한다.

시기적으로 길어진 부모-자녀관계 및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부양 문제로 인해, 노년기의 세대간 지속성과 지원에 관한 연구는 지난 20년간 노년학의 주된 연구초점이 되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구와 우리나라의 많은 연구들은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 부양행동, 상호원조, 상호접촉 등을 보았다.

서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세대간의 지원과 지속성은 주로 일상생활의 도움,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및 개인적인 돌봄을 주고 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간의 지원과 지속성은 서로 다른 동기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대간의 지원이나 부양은 보편적으로 노부모와 동거하면서 지속된다. 효사상과 사회보장의 미

비로 인해 노년기의 부모는 여러 가지 욕구를 자녀, 특히 동거자녀로부터 충족하며 자녀의 부양동기는 의무적인 특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김송애·조병은, 1991; 성규탁, 1995; 옥경희, 1996). 반면 미국의 경우 규범적으로 세대간의 독립을 강조하며 핵가족의 규범과 발달된 사회복지제도의 영향으로 인해 성인자녀-노부모관계는 비교적 자발적이고 애정적이며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Abel, 1986; Brody, 1985; Hess & Waring, 1979; Rossi & Rossi, 1990).

한편 노부모-성인자녀간 부양의 지속성과 상호지원은 부모의 생존 시에 많이 나타나나 사후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부모-자녀간의 상속은 세대간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를 부양한 자녀인 큰아들에게 가옥과 재산을 주고 다른 자녀에게는 거의 상속을 해주지 않는 등 차등상속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미국의 유산상속의 형태를 보면 세대간의 연결은 연속적인 서비스와 상호호혜성의 원리에 근거를 둔다(Sussman, Cates, & Smith, 1970).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는 자녀에게 상속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적인 세대간의 서비스는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간의 지속성인 부양과 상속과의 관계를 본 연구는 별로 없다. 미국의 경우 상속에 관한 몇 연구가 있으며(Freeman, Wolf, Soldo &

Stephen, 1991; Soldo & Hill, 1993; Tomes, 1981) 부양과 상속의 관계를 본 것으로는 Sussman과 동료들(1970)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산을 남긴 사람과 상속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으며 생존하고 있는 부모-자녀관계를 분석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양과 상속에 대한 규범 즉, 장자부양과 장자 우대상속이라는 부양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범적 장치가 뚜렷하였기 때문에 부양과 상속의 관계를 본 연구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일방적 부양을 강조하는 효사상이 강조되어 부양과 상속을 연결시키는 부양의 경제적, 상징적 측면을 본다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위배되어 연구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노부모 및 자녀세대의 핵가족화, 상속법의 변화 그리고 부모부양규범의 약화로 인해 부모부양에 관한 의식 및 상속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는 노부모세대 및 성인자녀세대 모두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상속과 부양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은 부모부양이 주로 자녀들에 의해 행해지며 상속도 대부분 자녀들에게 주어진다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양과 상속에 대한 규범과 사회적 지원이 다른 상황에서 노부모부양과 상속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과 미국의 자녀세대인 성인 딸/며느리가 지각한 부양동기, 부양행동정도, 부양기대 및 상속의식을 알아보고 양국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다.

둘째, 한국과 미국의 부모세대인 친정모/시모가 지각한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동기, 부양행동, 부양기대 및 상속의식을 알아보고 양국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부양동기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자녀의 노부모부양 동기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에 근거한 “효”의식과 직계가족을 이상으로 하는 가족구조 및 이에 따르는 장자우대의 재산상속으로 인해 노부모 부양 동기는 규범적, 의무적 속성이 강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성규탁(1995)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 장년층은 효행의지에 있어 책임과 희생에 대한 개념이 특히 높으며, 효행의지에 대한 인식은 연령이 많을수록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효행상을 받은 수상자들에 관한 연구에서도 효행의 동기는 부모에 대한 존경, 책임, 보답, 그리고 부모와 가족을 위한 희생인 것으로 밝혀졌다(성규탁, 1989).

서구사회에서는 노부모 부양에 관한 사회규범이 미약해짐에 따라 노부모를 부양하는 주된동기는 의무감 보다는 애정과 죄책감(Brody, 1985; Hess & Waring, 1978)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성인자녀 노부모 관계에서 부양의 의무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았다. 그러나 Walker와 동료들은(1990) 성인딸의 어머니부양은 애정과 의무감 모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성인딸은 사회적 맥락, 사회화 과정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의해 부모부양의 의무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Shin, 1989). 동시에 성인딸의 어머니에 대한 애정, 내재화된 가치관, 어머니와의 좋은관계등은 애정적 측면에서의 부양동기를 강화시킬수 있다(Abel, 1986).

피부양母的 입장에서 살펴본 자녀의 부양동기 지각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한 연구에 의하면(Walker et. al, 1990) 피부양母的 의무적 동기에 대한 부양지각은 높지 않다. 이 연구에 의하면 3/4의 피부양母가 딸들이 자발적·애정적 동기에 의해 어머니를 부양하는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2. 부양행동

부양행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는 실제적인 부양행동이 며느리에 의해 수행되므로, 주로 며느리를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일반적으로 며느리가 딸에 비해 부양행동을 많이 수행하며 특히 만며느리의 부양행동이 높다. 또한 동거하는 며느리가 분거하는 며느리보다 부양행동을 많이 수행한다. 그리고 부양행

동중 정서적 부양을 가장 많이 수행하며 도구적, 경제적 부양을 상대적으로 적게 수행하고 있다(김송애, 조병은, 1991; 이신숙, 서병숙, 1991).

미국의 경우 성인자녀 노부모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는 부모와 자녀사이에 도구적, 정서적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교환관계에 있어서 호혜성이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부모는 성인자녀에게 다양한 형태의 도구적, 정서적, 경제적 도움을 주며 노부모의 건강이나 경제상태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때에 관계의 성격이 변화하여 성인자녀로부터 노부모에게 도움이 제공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부모들은 일방적으로 부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나 손자녀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이나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ncini & Blieszner, 1987; Mutran & Reitzes, 1984; Scanzoni, 1995).

3. 부양기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병숙(1986), 허훈(1988)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노부모부양의 책임이 자녀들에게 있다는 의식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아직 노부모부양의 현실에 직면하지 않은 세대들의 응답이며 따라서 현실과 많은 괴리가 있을수 있다. 노부모부양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와같은 "이상주의적"인 태도는 미국의 연구에서도 밝혀진바 있다(Brody et al, 1983, 1984). 이와는 달리 현재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중년세대는 현재 자기가 노부모에게 행하는 것과, 자신의 노후에 자식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김명자·안선영·한정화(1996)의 연구에 의하면 중년세대가 신세대에 비해 노부모 부양부담감이 높았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볼 때 중년여성들의 자식에 의한 노후부양 기대는 자녀로부터의 노후부양을 당연시 여기는 현재의 노부모 세대에 비해 낮을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노부모부양에 대한 미국의 태도조사 연구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Brody와 동료들은(1983, 1984) 일련의 연구를 통해 자녀들의 노부모부양의

지가 상당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Blieszner & Mancini(1987)의 연구는 자녀들에 의한 노부모부양을 지지하는 정도가 높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연구 대상자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자녀부양에 대한 기대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위의 연구 모두 세대에 따라 가족원에 의한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rody와 동료들은 3세대 연구를 통해(노모/성인딸/손녀) 성인자녀들은 노부모를 경제적, 도구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정도가 높으며 특히 손자녀 세대가 이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음을 밝혔다. 그러나 노부모 세대는 성인딸이나 손녀에 비해 자신이 갚을수 없는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정도가 낮으며 대신 공격적인 서비스의 지원을 받는것에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낮았다.

4. 상속의식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은 상속제도를 남녀 균등상속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도 장자우대의 상속의식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추측된다. 과거의 장자우대 상속은 장자에게 노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을 주는 동시에 노부모 부양을 위한 물적·경제적 토대로써 실시되었다. 또한 노부모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써 장자우대 상속이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적인 변화이외에 가치관, 가족구조, 효에 대한 규범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현재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녀들과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노모들의 경우 부양과 상속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 있으며 이 두 개념을 어떻게 관련시키고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상속에 관한 미국의 연구는 배우자 우선 상속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재산이 많은 경우, 자산단체 등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보편적인 자녀상속 관행은 자녀균등 상속이며 노부모에게 특별한 역할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자녀에 대해 상속을 차별화 함으로써 호혜성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노부모에게 정서적, 도구적, 경제적 도움을 제공한 자녀의 경우, 보다 많은

지분의 상속을 받거나, 상속재산이 적은 경우 단독 상속을 받았다(Sussman et. al, 1970). 또한 노부모 부양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자녀들은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몫이 노부모를 부양한 자녀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호혜성을 유지하였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 이외의 먼 친척이나 비혈연자에게 상속을 남기는 경우 대부분 그들이 생전에 보여주었던 다양한 도움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연구 모두 부양과 상속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성인자녀와,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노모를 통해 부양동기에 대한 지각, 실제 부양행동, 부양기대 및 상속의식에 관해 비교하고자 한다. 해방이후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산업화, 개인주의화, 가치관의 변화, 상대적으로 높아진 자녀세대의 교육수준등으로 인해 양국간의 차이는 노부모세대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된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연구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성인 딸/며느리와 노모의 관계적 특성을 밝히기 위해 한국과 미국에서 수집한 자료의 일부이다. 한국의 자료는 서울에서 60세 이상의 노모와 동거하며 1명 이상의 형제, 자매가 있는 기혼여성인 딸/며느리 및 친정모/시모 쌍으로부터 수집하였다. 총 186쌍에게 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자료기체가 부실하거나, 성인자녀에게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167쌍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는 1996년 3월부터 10월동안에 수집되었다. 성인자녀는 설문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을, 노모의 경우 훈련된 면접자가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미국의 경우 동거부양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이 한국과 다르게 적용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자료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충족시키는 성인 딸/며느리 및 친정모/시모 쌍으로부터 수집되었다. 성인자녀 스스로가 65세 이상된 노모의

1차적 부양자라고 생각하며 성인자녀의 형제, 자매가 1명 이상 살아있는 경우이다. 미국의 서북부에 있는 주에서 노인을 위한 단체에서 주소록을 제공받아 본연구의 참여 의사를 타진하는 엽서를 보낸후 이에 응답한 사람들을 면접조사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1996년 12월부터 1997년 7월 사이에 수집되었으며 본 연구에는 총 74쌍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는 SAS-PC로 통계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징은 기초통계 자료로 산출하였으며 한국과 미국의 비교를 위해서는 t-test를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1) 부양동기

성인자녀의 부양의무감은 “귀하는 어느정도의 의무감을 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까?” 하는 문항으로, 부양에 있어서 애정의 정도는 “귀하는 어느정도의 애정을 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까?” 하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응답범위는 0%~100%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무감과 애정의 비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노모가 지각한 성인자녀의 부양의무감과 애정의 정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즉 “자녀가 어머니를 모시는 데에 있어 의무감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정도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응답범위는 0%~100%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무감과 애정의 비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부양행동

자녀의 노모부양 행동은 용돈 및 생활비 제공, 식사시중·빨래·청소, 정서적 지지, 정보제공, 친척집/병원 모시고 다니기, 치료비/보약비용 지불, 외식/여행 모시고 다니기 등의 7문항 4점 Likert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모부양 행동을 많이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모가 지각한 자녀의 부양행동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부양행동

을 많이 하는 것으로 지각한 것을 의미한다.

3) 부양기대

자녀의 부양기대는 “내가 늙었을 때 자식들이 돌보아 주기를 원한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보살펴야 한다.”는 2문항으로 측정되었다. 4점 Likert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기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노모의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4) 상속의식

자녀의 상속의식은 “내가 늙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와 “노부모를 모신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상속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2문항으로 측정되었다. 4점 Likert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에 따르는 상속의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노모의 상속의식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1) 한국과 미국자녀의 특성

한국의 부양자녀의 평균연령은 40.56세(SD=8.13)이며, 10명중 6명은 가정주부이다. 나머지 10명중 4명은 사무직, 전문기술직, 판매직 등의 다양한 직업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성인자녀의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이 가장 많으며(39%) 대졸이상의 학력도 32%에 이른다. 성인자녀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2,444,000원(SD=1,152,000)이다. 부양자와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보면 큰며느리 53.4%, 큰며느리 이외의 며느리 28.8%, 그리고 딸이 17.8%에 달한다. 성인자녀의 평균 형제, 자매수는 3.98명(SD=1.90)이며 노모를 동거 부양한 기간은 평균 9.5년(SD=7.86)이다.

미국의 부양자녀의 평균연령은 50.64세(SD=11.26)이다. 10명중 4명은 취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절반은 시간제로, 나머지 절반은 전일제 취업을 하고 있다. 직업을 보면 기술직이 가장 많고(28.2%), 나머지는 자영업, 전문직, 서비스직

등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성인자녀의 교육수준을 보면 대졸이 가장 많으며(51.9%), 대학중퇴(26%), 고등학교졸업(22%) 등의 순이다. 성인자녀 가족의 연평균 수입은 \$60,000~69,999이 가장 많다(21.3%). 부양자와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보면 며느리가 39.2% 딸이 60.8%이다. 성인자녀의 평균 형제, 자매수는 2.48명이다. 현재 9%의 자녀만이 노모와 동거하고 있으며 동거하는 경우 평균 동거연수는 4.23년(SD=5.15)이다. 부양자녀의 인종은 백인이 가장 많으며(92.2%) 나머지는 아메리칸 인디언과 히스패닉 혼혈 등에 속한다.

2) 한국과 미국모의 특성

한국어머니의 평균연령은 71.38세(SD=7.79)이다. 어머니 혼자 쓸 수 있는 월 평균 수입은 20만원 미만인 가장 많으나(54.6%)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도 7.4%에 이른다. 노모의 학력을 보면 국졸이 가장 많으며(43.9%) 다음이 무학(26.8%) 고졸(13.4%) 중졸(9.1%)의 순이다. 노모가 스스로 지각한 건강 상태는 4점척도 기준으로 평균 2.68(SD=0.80)로, 스스로를 비교적 건강한 편으로 지각하고 있다.

미국어머니의 평균연령은 80.62세(SD=8.96)이며 연평균수입은 \$10,000~19,999이 가장 많고(29%) 그 다음이 \$20,000~29,999이다(20.3%).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가장 많으며(43.2%) 대학교 중퇴 20.3% 고등학교 졸업 20.3%등으로 한국의 노모에 비해 학력이 높다.

노모 스스로 지각한 건강상태를 보면 5점척도 기준으로 평균 3.93(SD=0.96)으로 스스로를 상당히 건강하게 지각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경우 모두 백인이다.

2. 한국과 미국자녀의 비교

1) 부양동기

양국자녀의 노모부양 의무감의 정도를 비교하면 <표 1>과 같이 한국자녀 평균 73.85, 미국자녀 평균 71.60으로 양국자녀간에 부양의무감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또한 어머니를 부양하는데 있어 어머니에 대한 애정의 정도를 살펴보면 한국자녀 평균 64.86,

미국자녀 평균 70.68로 양국자녀간에 어머니에 대한 애정적 부양동기에 차이가 없다.

〈표 1〉 한국과 미국자녀의 부양동기 비교

부양동기	한국(N=167) 평균(SD)	미국(N=74) 평균(SD)	t값
의무감	73.85(20.39)	71.60(30.54)	-0.58
애정	64.86(20.56)	70.68(27.95)	1.59

2) 노모에 대한 부양 행동

〈표 2〉와 같이 한국자녀가 노모에게 제공하는 부양행동 평균은 18.90으로 미국자녀가 노모에게 제공하는 부양행동 평균 14.89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 부양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해 보면 용돈 및 생활비 제공, 식사시중 및 빨래·청소, 치료비 지불 및 보약지어 드리기, 여행이나 외식시 모시고 다니기 등에서 한국자녀가 미국자녀에 비해 부양행동을 유의하게 많이 하고 있다. 반면 노모에 대한 정서적지원, 정보제공, 친척집이나 병원 등에 모시고 다니기 등에서는 양국자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

3) 부양기대

‘내가 늙었을 때 자녀가 돌보아 주기를 원한다.’는 문장에 대한 한국자녀의 응답평균은 2.39(SD=1.72), 미국자녀의 응답평균은 2.31(SD=0.86)로 노후의 자녀부양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으며 양국간에 유의한

차이도 없었다($t=-0.49, P<.60$). 또한 ‘부모와 자녀는 서로 보살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한국자녀 평균 3.16(SD=0.65) 미국자녀 평균 3.30(SD=0.71)으로 양국자녀 모두 긍정하는 바가 높으나 양국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46, P<.15$).

4) 상속의식

‘내가 늙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는 자녀는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한국자녀 평균 2.73 미국자녀 평균 2.85로 대체로 그렇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양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노부모를 모신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상속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한국자녀 평균 2.98 미국자녀 평균 2.72로 대체로 그렇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양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3〉 참조). 즉 한국의 자녀가 미국자녀에 비해 노부모를 모신 자녀는 다른 자녀보다 상속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높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어떻게 상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양국간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29.44, P<.001$). 한국자녀들의 경우 부모를 돌보는 자녀에게 많이 상속해야 한다(45.1%), 자녀균분상속(29.6%), 장남에게 많이 상속한다(17.9%)순이었다. 반면 미국자녀들의 경우 자녀 균분상속에 동의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49.4%) 그다음이 부모부양자녀에게 상속을 많이 한다(33.8%) 순이었다.

〈표 2〉 한국과 미국자녀의 부양행동 비교

부양행동유형	한국자녀(N=167) 평균(SD)	미국자녀(N=74) 평균(SD)	t값
1. 용돈 및 생활비 제공	2.84(0.89)	1.49(1.01)	-9.96***
2. 식사시중, 빨래, 청소	2.59(0.99)	1.46(0.94)	-8.44***
3. 말동무 해드리기	2.67(0.74)	2.69(0.90)	0.22
4. 정보제공	2.65(0.93)	2.61(0.85)	-0.33
5. 친척집·병원 모시고 다니기	2.70(0.94)	2.57(1.28)	-0.77
6. 치료비 및 보약값 지불	2.88(0.88)	2.10(1.32)	-4.56***
7. 외식·여행에 모시고 다니기	2.69(0.91)	2.40(0.90)	-2.32*
계	18.90(4.57)	14.89(5.81)	-5.33***

* $p<.05$ *** $p<.001$

〈표 3〉 한국과 미국자녀의 상속의식 비교

문항	한국 (N=167) 평균(SD)	미국 (N=74) 평균(SD)	t값
내가 늙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는 자녀는 반드시 그에따른 대가를 받아야 한다.	2.73 (0.86)	2.85 (0.90)	1.02
노부모를 모신 자녀는 다른 자녀보다 상속을 많이 받아야 한다.	2.98 (0.90)	2.72 (0.83)	-2.20*

* p<.05

3. 한국과 미국의 노모 비교

1) 자녀의 부양동기에 대한 노모의 지각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의 부양의무감 평균은 〈표 4〉와 같이 한국어머니의 경우 71.05, 미국어머니의 경우 35.15로 한국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의 부양의무감이 유의하게 높다. 반면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의 애정적 동기 평균을 보면 한국어머니의 경우 72.79, 미국어머니의 경우 74.24로 양국어머니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

〈표 4〉 한국어머니와 미국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의 부양동기 비교

	한국 (N=167) 평균(SD)	미국 (N=74) 평균(SD)	t값
부양에 있어서의 의무감 정도	71.05 (21.75)	35.15 (32.59)	-8.23***
부양에 있어서의 애정의 정도	72.79 (18.33)	74.24 (27.46)	0.40

*** P<.001

2) 노모가 지각한 자녀의 부양행동

〈표 5〉와 같이 한국의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의 총 부양행동 평균은 18.97, 미국의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의 총부양행동 평균은 11.71로 한국의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의 부양행동이 유의하게 높다. 그리고 자녀의 부양행동에 대한 양국어머니의 지각차이는 용돈 및 생활비제공, 식사시중·빨래·청소, 말동무 해드리기, 정보제공, 친척집 및 병원 모시고 다니기, 치료비 및 보약값 지불, 그리고 외식 및 여행에 모시고 다니기 등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어머니가 미국의 어머니에 비해 자녀

〈표 5〉 한국과 미국의 노모가 지각한 자녀의 부양행동 비교

부양행동유형	한국모의 지각(N=167) 평균(SD)	미국모의 지각(N=74) 평균(SD)	t값
1. 용돈 및 생활비 제공	3.00(0.92)	1.09(0.39)	-22.02***
2. 식사시중, 빨래, 청소	2.68(1.08)	1.24(0.69)	-12.01***
3. 말동무 해드리기	2.62(0.77)	2.33(0.77)	-2.57*
4. 정보제공	2.55(0.87)	2.24(0.80)	-2.55*
5. 친척집, 병원 모시고 다니기	2.67(1.00)	2.17(1.26)	-2.95**
6. 치료비 및 보약값 지불	2.87(0.98)	1.28(0.77)	-12.98***
7. 외식·여행에 모시고 다니기	2.66(0.97)	2.06(0.75)	-4.92***
계	18.97(4.71)	11.71(3.92)	-12.08***

* p<.05 ** p<.01 *** p<.001

의 노모부양 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3) 노모의 부양기대

〈표 6〉와 같이 ‘내가 늙었을 때 자식들이 돌보아 주기를 원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한국어머니와 미국어머니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한국의 어머니가 미국의 어머니에 비해 노후에 자녀들로부터 부양받기를 기대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부모와 자녀는 서로 보살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한국의 어머니가 미국의 어머니에 비해 동의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4) 노모의 상속의식

〈표 7〉과 같이 ‘늙었을 때 나를 돌보아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한국의 노모와 미국의 노모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노부모를 부양한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상속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는 양국 어머니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즉 한국의 어머니가 미국의 어머니에 비해 동의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상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하는 질문에 대해 양국의 어머니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75.85, P<.001$). 한국어머니의 경우 큰아들에게 많이 상속한다(40.2%), 부모부양 자녀에게 상속을 많이 한다(32.3%), 아들·딸 구별없이 똑같이 상속한다(17.7%) 등의 순이었다. 반면 미국 어머니의 경우 아들·딸 구별없이 똑같이 상속한다(70.6%), 부모부양자녀에게 많이 상속한다(20.6%), 못사는 자녀에게 많이 상속한다(5.9%) 순이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부양자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40대 초반에 속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며느리이며, 4명의 형제·자매가 있고 노모와 10년정도 동거하였다. 미국의 경우 부양자녀는 50대에 속

〈표 6〉 한국과 미국 노모의 부양기대 비교

문 항 내 용	한국모(N=167) 평균(SD)	미국모(N=74) 평균(SD)	t값
노후에 자녀들이 돌보아 주기를 기대한다.	3.36(0.75)	2.17(1.08)	-8.24***
부모와 자녀는 서로 보살펴야 한다.	3.37(0.63)	3.09(0.71)	-2.70**

** p<.01 *** p<.001

〈표 7〉 한국과 미국노모의 상속의식 비교

문 항 내 용	한국모(N=167) 평균(SD)	미국모(N=74) 평균(SD)	t값
내가 늙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2.87(0.84)	3.01(0.67)	1.36
노부모를 부양한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상속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3.18(0.76)	2.63(0.89)	-4.34***

*** p<.001

한 딸이며 한국의 자녀에 비해 학력이 높다. 형제자매수도 한국보다 적으며 거의 대부분 분거부양을 하고 있다. 이와같은 차이는 노모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피부양모는 70대의 초등학교를 졸업한 시어머니이며 스스로를 건강한편이라고 지각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피부양모는 80대에 속하며 대학중퇴나 대졸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스스로를 상당히 건강하게 지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부양자녀는 노모와의 관계, 평균연령, 학력등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딸이 많으며 한국에 비해 평균연령이 높고 학력도 높다. 노모의 경우에도 한국의 노모에 비해 미국의 노모가 평균연령과 학력수준이 높다.

둘째, 자녀가 지각한 부양동기를 살펴보면 의무감과 애정적 측면 모두 양국자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 이는 미국의 경우 자녀의 노부모부양 동기는 자발적인 애정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의 노부모부양 동기는 의무적인 성격이 클 것이라는 가정과는 상이하다. 이러한 결과는 노모들이 아직은 건강하여 신체적 의존도가 높지 않으며 따라서 부담감이 비교적 적은 관계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애정과 의무감을 모두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양국자녀 모두 부양동기에 있어 의무감과 애정이 모두 높게 나타난 것은 성인 대 성인으로서의 관계인 부모-자녀 관계가 비교적 건강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반면 노모의 경우 자녀의 부양동기 지각에 있어 양국간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미국의 모가 한국의 모에 비해 부양의무감에 대한 지각이 낮았다. 이러한 현상은 성인자녀-노부모 관계는 자발적이고 애정적인 관계에 기초한 것이라는 미국인들의 가치체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미국의 경우, 성인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노모의 경우 자녀의 의무적인 부양동기를 낮게 지각함으로써 부양을 받는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 시키고 피부양에 따르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국과 미국자녀의 부양행동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자녀의 부양행동이 높다. 특히 한국자녀는 미국자녀에 비해 경제적, 도구적, 오락적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 자녀의 지각으로 봤을 때 한국모들이 미국의 모에 비해 성인자녀에게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모가 지각한 자녀의 부양행동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양국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의 모가 미국의 모에 비해 자녀의 부양행동을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자녀의 부양행동 전 영역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현실적·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통적으로 “효”를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경우 자녀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지원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효”를 행하는 자식을 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므로 노모는 이것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따라서 자녀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표현이 자유스럽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한국의 경우 동거자녀만을 보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부모의 욕구는 대부분 동거자녀에 의해 충족되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송현애·김순옥, 1988; 이신숙·서병숙, 1991)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 포함된 노모들의 학력이나 연령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본 연구대상 노모는 경제적, 정서적으로 독립적인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세대간의 독립성과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문화에서 성인자녀와 동거하지 않으므로 제한된 도움을 받으며, 성인자녀의 지원을 받는 노모의 경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신에게 비용이 되므로 자신이 받는 지원을 실제보다 적게 지각할 수 있다. 또한 우리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한 사회복지 제도, 노후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준비, 높은 교육수준 등으로 인해 미국의 노모들은 한국의 노모에 비해 10년 정도 연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한국의 노모에 비해 매우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한국과 미국의 자녀는 부양기대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노후의 자녀부양에 대한 기대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자녀세대에서도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변화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부양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노모의 경우 양국간의 차이가 크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노모는 미국의 노모에 비해 노후에 자녀들이 돌보아 주기를 높게 기대하며, 부모와 자녀는 서로 보살펴야 한다는 의식도 높다. 이는 전통적인 "효"를 받아들이고 이를 수행했던 한국의 노모세대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한국의 자녀와 부모 모두 미국의 자녀와 노모에 비해 노부모를 모신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상속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 노부모부양과 상속과의 연결의식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대상이 노모와 동거하는 자녀들이며 동거하는 자녀의 대부분이 며느리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동시에 노부모 부양이 미국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우며, 따라서 노부모 부양을 하는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부모부양에 따르는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데에 자녀와 노모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의 장자세대 상속이 장자의 노부모부양 및 봉제사의무와 맞물렸던 것을 생각할 때에 이해될 수 있다.

바람직한 상속방법에 있어서도 한국자녀의 경우 노부모부양자녀에 대한 우대상속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자세대 상속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노모의 경우 장자세대상속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국자녀의 경우 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상속규범이 균분상속이기 때문에 균분상속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고 부모부양자녀에 대한 우대상속의 순으로, 그리고 노모의 경우 균분상속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의 경우 아직도 장자에 대한 특별한 의식이 70대의 노모세대 뿐만아니라 현재 40대에 속해있는 부인들에게도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법적인 상속제도는 자녀균등상속으로 변화하였으나 우리의 관습은 아직도 장자세대에 대한 선호가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노부모 부양과 재산상속 의식과의 관계를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본 탐색적인 연구이다. 비교연구는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확률표집을 요하나 한국의 경우 대도시인 서울에서, 미국의 경우 서북부의 비교적 작은 도시에서 추출된 백인이 연구대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는 노부모부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맥락을 비교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는 부양동기 및 부양행동과 상속의식과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명자, 안선영, 한정화(1996). 신세대와 중년기 부모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 및 보상감 분석. *가정관리학회지*, 14(2), 97-110.
- 2) 김송애, 조병은(1991).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 *가정관리학회지*, 9 (2), 303-322.
- 3) 서병숙(1986). 부모노후의 책임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6, 101-120.
- 4) 성규탁(1989). 현대한국인의 효행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9, 28-43.
- 5) 성규탁(1995). 한국인의 효행의지와 연령층들간의 차이. *한국노년학*, 15(1), 1-14.
- 6) 송현애·김순옥(1988).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 *가정관리학회지*, 6 (2), 83-102.
- 7) 이신숙, 서병숙(1991). 농촌기혼여성의 노부모 부양의식과 부양수행도. *한국노년학*, 11(2), 191-211.
- 8) 옥경희(1996).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 부양: 의무에서 성숙의 차원으로. *가정관리학회지*, 14(2), 265-276.
- 9) Abel, E. K. (1986). Adult daughters and care for the elderly. *Feminist Studies*, 12, 479-497.
- 10) Blieszner, R., & Mancini, J. A. (1987). Enduring ties: Older adults' parental role and responsibilities. *Family Relations*, 36, 176-180.

- 11) Brody, E. M. (1985). Parent care as a normative family stress. *The Gerontologist*, 25(1), 19-29.
- 12) Brody, E. M., Johnsen, P. T., Fulcomer, M., & Lang, A. M. (1983). Women's changing roles and help to elderly parents: Attitudes of three generations of women. *Journal of Gerontology*, 38, 597-607.
- 13) Brody, E. M., Johnsen, P. T., & Fulcomer, M. (1984). What should adult children do for elderly parents? *Journal of Gerontology*, 39, 736-746.
- 14) Freeman, V., Wolf, D. A., Soldo, B. J., & Stephen, E. H. (1991). Intergenerational transfer : A question of perspective. *The Gerontologist*, 31, 640-647.
- 15) Hess, B.B. & Waring, J. M. (1978). Parent and child in later life: Rethinking the relationship. In R. M. Lerner & G. B. Spanier (eds.), *Child influence on marital and family interac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16) Horowitz, A., & Shindelman, L. W. (1983). Reciprocity and affection: Past influence on current caregiving.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5, 5-20.
- 17) Mutran, E., & Reitzes, D. C. (1984). Intergenerational support activities and well-being among the elderly: A convergence of exchange and symbolic interaction perspectiv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 117-130.
- 18) Rossi, A.S., & Rossi, P.H.(1990). *Of Human bonding: Parent-child relations over the life course*. New York: Aldine de Gruyter.
- 19) Scanzoni, J.(1995). *Contemporary families and relationships-reinventing responsibility*. New York: McGraw-Hill.
- 20) Shin, H. Y. (1989). *The influence of age stratification on motives for and outcomes of caregiving in mothers and daughters*. Ph.D. dissertation submitted to Oregon State University.
- 21) Soldo, B.J., & Hill, M.S.(1993). Intergenerational transfers: Economic, demographic and social perspectives. In G.L. Maddox & M. P. Lawton (eds.), *Annual review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13, 187-216.
- 22) Sussman, M.B., Cates, J.N., & Smith, D.T. (1970). *The family and inheritanc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23) Tomes, N(1981). The family, inheritance and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inequa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 928-9.
- 24) Walker, A., Pratt, C., Shin, H. Y., & Jones, L. (1990). Motives for parental caregiving and relationship quality. *Family Relations*, 39, 51-56.